인수위 '영어 공교육 프로젝트' 의미와 과제

'죽은 영어' 살리기 대프로젝트

5년간 4兆 투자 … 2012년부터 중·고 영어로만 수업

영어 과외비 증가 문제·전용 교사 육성 난제 수두룩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29일 발표한 '영어 공교육 프로젝트'의 요체는 정부가 향후 5년간 4조원을 들여 교원확충, 교육과정, 교육환경 등 영어 공교육 여건을 개선해 사교육 시장으로 가있는 영어교육 수요를 공교육으로 다시 끌어오자는 것이다.

이는 부모의 소득격차에 따라 '영어 격차(English Divide)' 현상이 빚어지는 '가난의 대물림'을 막아보자는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의 인식에서 시작된 것이다. 하지만, 사교육비를 더욱 늘려 가난의 대물림을 심화시킬 수도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영어교원 대거 확충**=오는 2013년까지 영어전용교사를 2만3천명 신규 채용하며 이를 위해 영어전용교사 자격제도가 내년부터 새로 도입된다. 영어전용교사로는 국내외 영어교육과정 이수자(테솔 : TESOL 등)와 영어권 국가 석사학위 이상 취득자, 교사자격증 소지자, 전직 외교관, 상사 주재원 등이 구술면접을 통해 선발될 예정이다.

인수위는 내년 영어전용교사를 선발, 2010년부터 초·중등학교에 집중 배치할 계획이다. 향후 5년간 양성되는 2만3천명 가운데 초등학교에 1만명, 중·고교에 1만3천명이 배치된다.

현직 영어교사들을 위해 내년부터 해마다 1천500명의 현직 영어교사들이 5개월 국내 연수와 1개월 해외연수를 하는 형식으로 6개월 동안 집중적인 영어 연수를 받도록 하는 등 인수위는 매년 3천명의 현직 영어교사 심화연수 제도를 마련한다.

◇**영어수업 확대**=초등학교 3~6학년생들은 2010년부터 영어를 영어로 하는 수업을 주당 3시간씩 받게 된다. 현재는 3~4학년이 1시간, 5~6학년이 2시간씩 영어전용수업을 받고 있다. 초등학교 1,2학년은 학부모와 학교의 선택에 따라 재량활동과 특별활동, 방과후학교 등을 통해 영어전용수업을 받을 수 있다.

중·고교의 경우 2010년 중3, 고1 학생을 대상으로 영어수업을 본격화한 뒤 2012년에는 중·고교 전체 학년까지 확대하고, 실용영어 등 회화수업의 비중을 중학교 50%, 고교 70%까지 크게 늘린다는 계획이다.

◇**실현 가능성 논란**=하지만 당장 재원 조달 문제가 거론된다. 인수위는 앞으로 5년간 4조원의 재정을 영어 공교육에 쏟아붓는다는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영어전용교사 신규채용에 1조7천억원 ▲교사 심화연수에 4천800억원 ▲영어보조교사 지원 3천400억원 ▲원어민 보조교사 지원 2천300억원 등의 세부내역이 공개돼 있다.

인수위는 전 부처 '예산 10% 절감'운동을 통해 재원조달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10% 절감 공약이 어느 정도 현실화될 수 있을지 미지수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30일 서울 삼청동 인수위 대회의실에서 열린 '영어공교육 완성을 위한 실천방안' 공청회 참석자들이 이주호 사회교육문화분과위 간사의 사회로 토론하고 있다. /연합뉴스

영어로만 수업? "YES"… 한쪽선 "NO"

인수위 공청회 교원 확충 등 논란 … 총론은 공감 각론엔 온도차

2010년부터 모든 영어과목을 영어로 수업하고 영어전용교사 2만3천명을 신규 채용하는 내용의 새 정부의 영어공교육 강화 프로젝트를 둘러싸고 교육계가 30일 논란을 벌였다.

이날 서울 삼청동 인수위 대회의실에서 열린 공청회에서 인수위 방안에 대해 학자와 일선 교사, 학부모 등은 총론에서 대체로 공감을 표시했지만 각론에선 미묘한 온도차를 드러났다.

인수위는 하지만 이날 공청회에 전국교직원노조(전교조) 등을 초청하지 않았으며 학부모 대표도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등 진보 성향의 교육단체 인사들이 빠진 채 보수 성향의 '인간교육실현 학부모연대' 인사만 참석, 반대나 비판하는 목소리에는 귀를 기울이지 않고 있다는 비판을 받았다.

이날 공청회에 나온 토론자들은 일반적으로 영어 수업이 피할 수 없는 시대적 요구라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홍후조 고려대 교수는 "뒤늦었지만 새 정부에서 영어교육을 종합적·단계적·연차별로 확대강화하는 것은 매우 시의적절하다"며 "초등학교에서 일상회화가 잘 되면 중등학교에서는 자기 진로에 맞게, 꼭 필요한 외국어를 의사소통할 수 있도록 뒷받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학부모 대표로 나온 이경자씨는 "초등학교에서 영어 전담교사뿐만 아니라 일반 선생님들도 영어에 적극적으로 임해달라. 선생님들의 자세도 바뀌어 한다"며 "그렇게만 해준다면 사교육 시장에 가지 않겠다"고 말했다.

학교장과 일선 교사들은 영어 수업을 위한 기본적인 인프라를 갖추면서 정책을 추진해야 성공할 수 있다며 신중한 입장을 나타냈다.

김인정 경기도 고양시 오마초등학교 교사는 "초등학생들은 한국말로도 의사소통 자체가 안 되는 경우도 있다"며 "영어 수업이 가장 바람직한지 의문이 든다"고 지적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새정부 정상출범 총력

李 당선인, 신당 설득·국민 호소 '양면 작전' 구사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측이 30일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위해 총력 태세에 들어갔다.

노무현 대통령과 원내 제1당인 대통합민주신당에 대한 설득작업을 지속적으로 벌이는 동시에 언론과 국민을 상대로 정부조직 개편의 당위성을 호소하는 '양면작전'을 본격 구사하고 나선 것.

노 대통령과 신당이 정부조직법의 조속 처리에 부정적인 상황에서 최대 지지기반인 '여론'을 지렛대 삼아 정치권을 역으로 우회 압박해 보겠다는 전략이다.

이경숙 대통령직인수위원장은 이날 인수위 간사회의에서 "이제 중요한 것은 조직개편안이 무난히 국회를 통과하는 것"이라면서 "지금까지 열심히 했지만 앞으로도 최선을 다해 청와대나 국회의원들이 전부 이해할 수 있도록 그 취지를 정확히 알리는 노력을 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당선인도 청와대나 다른 여러 경로를 통해 적극 노력하고 있고 한나라당에서도 노력을 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국민의 합의를 도출해 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며 대국민 홍보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만의 하나 국정을 운영하는데 있어 리더십의 공백이 생긴다면 국가적 손해인 것은 물론 국제적 위상에도 문제가 생긴다"면서 "작고 효율적인 정부를 통해 경제를 회복시키고 국민을 행복하게 해 주겠다는 취지가 잘 소통되면 어려움을 이기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김형오 부위원장도 "정부조직법을 국회에 제출한 지 열흘째가 된다"면서 "87년 평화적 정권교체가 이뤄진 이후로 파행이 없었다. 당리당략을 떠나 국회가 노력했고 10년 전 김대중 정부가 출범할 때도 정부조직법은 발의 후 12일째 되는 날 통과됐다"고 지적했다.

이 당선인측은 앞으로 라디오 출연, TV토론회 참석 등을 통해 정부조직 개편의 취지를 충분히 설명하고 대국민 협조를 당부해 나갈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이한구 의장 "대운하 국가 재정 투입 안한다"

이한구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은 "한반도 대운하는 반드시 전문가와 국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추진할 것이며, 국가 재정이 투입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의장은 30일 열린 사단법인 건설산업비전포럼 주최 조찬 토론회에서 "대운하가 민자사업으로 추진이 안될 경우 정부가 꼼수를 부려 재정을 투입할 것이라는 시각이 있는데 절대 그럴 일은 없을 것이고, 그럴 돈도 없다. 한나라당이 망하기로 작정하지 않는 한 그런 일은 절대 없을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의장은 "대운하 사업은 이명박 당선자도 이미 밝혔듯이 각계 전문가와 국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추진하게 될 것"이라며 "과학적이지 않은 방법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는 없고, 사업에 대한 평가는 국민들이 하게될 것"이라고 못박았다.

그는 "그동안 토지생산성이 국가 경쟁력 확보에 중요하다는 인식이 굉장히 부족했다"며 "투기는 절대 용납할 수 없지만 그린벨트, 농지·산지, 군사시설 등은 꼭 필요한 용도에 맞게 풀어주고 서민 택지공급이나 장기임대산업단지, 실버타운 촉진 등 국민이 동의하는 분야에서 친환경적으로 개발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그린벨트 해제 등 규제 완화나 국토 개발로 토지 자체의 가치가 올라 가격이 뛰는 것까지 문제삼을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조직개편으로 행정공백 우려"

장병완 기획예산처장관

장병완〈사진〉 기획예산처장관은 30일 "이번 정부조직 개편으로 인해 행정업무 공백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장 장관은 이날 출입 기자단과의 오찬 간담회에서 "두개 부처가 단순히 통합하는 데만 몇 개월이 걸린다"면서 "하물며 1개의 부처가 여러 부처로 분산되는 등의 대형 조직 개편은 시간이 훨씬 많이 소요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조직의 인사를 마무리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시간이 1개월 정도"라면서 "이런 점을 감안하면 통합 조직이 화학적 결합을 거쳐 시너지효과를 얻는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장 장관은 "기획예산처의 기획재정부 통합이 부족한 분야를 해결하고 미래에 제대로 대비하는 등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오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마술(Magic) 무료 수강생 모집

마술이란 감동과 사랑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메신저입니다.
마술을 통하여 어린이에게는 꿈과 아이큐 향상을, 성인에게는 개인의 장기자랑 및 취미생활로 활용하며 봉사활동을 하시는 분은 웃음을 잃은 사람에게 용기와 꿈과 희망을 주는데 목적이 있으며, 본 무료교육 프로그램은 마술에 관심있는 모든 사람을 위해 사회봉사차원에서 실시하는 무료강좌 프로그램입니다.

모/집/대/상
- 유치원, 초 · 중등교사로서 수업에 활용하실분
- 봉사활동 및 취미로 배우시려는 주부 및 어르신
- 마술에 관심있는 초 · 중 · 고등생 및 일반인
- 소극적인 성격 개선 및 각종 발표회에 응용
- 비지니스를 위한 영업전략에 활용하실분
- 초 · 중등생 게임중독치료 및 발표력 향상
- 초 · 중등 특기적성 마술교사로 활동하실 분(취업추천)

무료 초·중등 어린이 마술 교실 특강
마술은 어린이들에게 꿈과 희망과 아이큐 향상 및 요즘 화두로 더오르는 EQ(감성)지수도 높여준다. 특히 성격 개선 및 각종 발표회에 활용할 수 있다.
★교육기간 : 주1회 8주 2개월
★교 육 비 : 무료(미술도구비 별도, 개인소장)
★교육장소 : 동부경찰서뒤 무등고시학원
★접수방법 : 선착순 20명 전화 예약 접수(개인교습)

교육장소 · 광주(금남로 무등고시학원) · 목포(하동 숲속이야기 평생교육원) · 순천(연향동사거리 GMB영어학원) 문의 : (062)434-7857
★각종 행사 (동문회, 교회행사 등) 출장 공연★

매직&매직 아카데미 ☎(062)434-7857

전액국비수강생모집

부동산실무

구 분	교육과정	교육기간	개 강
재직자 및 일반인	공인중개사	2개월	매월초
	주택관리사	2개월	매월초

※ 2008년도 대비 6개월과정 특별반 접수중!! (주간반/야간반/주말반)

컴퓨터

구 분	교육과정	교육기간	개 강
재직자 및 일반인	컴퓨터활용실무	2개월	12월 3일
	CAD	2개월	매월초
	워드실기	1개월	수시
	컴활실기	1개월	수시
	정보화기초 1,2	5주	매월초

※ 교육대상 : ■고용보험에 가입된 재직자 교육수료후 환급 ■일반인 및 대학생 수강료 특별할인

◎노동부지정 직업능력개발 훈련시설
현대직업전문학교
동부경찰서 옆 ☎224-4560, 232-1088 http://www.hdedu.co.kr

= 가장 확실한 합격의 길!! 무등과 함께 하십시오!! =
7·9급 공무원 완전대비
강좌직종
행정직 교행직 세무직 관세직 감사직 법원직 검찰직 교정직 보호직 소방직 전산직 복지직 토목직 건축직 보건직
=47년 동안 합격시켜 본 경험이란 헤아릴 수 없는 값을 치른 보물이다.=
정규이론D반 모집 = 2개월 완성 이론반 =
개강 2월1일
9급 문제풀이반 = 1개월 완성 코-스 =
考試의 名門 무등고시학원 www.mdgosi.co.kr
광주 동부경찰서 뒤 (중앙초교 후문앞) ☎ 222-4560

www.hanbitgosi.co.kr = 2008년 공무원 합격은 한빛이 주도한다!
2008년 국가직/ 지방직 공무원시험 거침없이 합격하라! - 한빛이 응원합니다!
7·9급 공무원 합격大특강
개설직종 : 행정직, 교육행정직, 세무직, 법원직, 검찰직, 사회복지직, 군무원, 교정직, 소방직, 농업직, 토목직, 건축직, 전산직, 보건직, 기술직
9급 문제풀이반 (1개월완성)
9급 이론짝수반 (2개월완성)
개강 2월1일 전직종 첫진도
사전예약접수중
수험생 만족도 1위 한빛공무원학원 전대후문 북구청앞 (062) 252-0252